

스트레스에 따른 대학생 탈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표영희[†]

오산대학교 준오헤어시그니처과, 교수
(2023년 11월 10일 접수: 2023년 12월 21일 수정: 2023년 12월 21일 채택)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College Student Hair Loss According to Stress

Young-Hee Pyo[†]

Department, of Juno Hair Signature, Osan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10, 2023; Revised December 21, 2023; Accepted December 21, 2023)

요 약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탈모와의 관련성, 탈모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스트레스와 탈모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기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4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탈모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상실'로 분석되었고, 특히 진로/취업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사람일수록 '자신감 상실'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탈모 인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의 교차분석 결과와 유형별 스트레스와 탈모 인식을 구성하는 탈모 현황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가 대학생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진로/취업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탈모가 생겼을 경우 대인관계나 경제적 문제에 앞서 진로/취업, 학업, 외모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탈모 치료에 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탈모 인식에 있어서 탈모 현황, 탈모 관리, 탈모 치료의 3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실증적 연구 방법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스트레스, 탈모 인식, 탈모 현황, 탈모 관리, 탈모 치료

[†]Corresponding author

(E-mail: bluewrap@osan.ac.kr)

* This project is the research result of the 3rd stage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leading college development project (LINC 3.0), which was carried out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연구결과임

Abstract : This study collected 245 questionnaires from college students in Gyeonggi-do and analyzed them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s,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status of hair loss perception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air loss re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hair loss perception by typ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biggest problem caused by hair loss was 'loss of confidence', and in particular, people who were stressed about career/employment and studies were analyzed to consider the problem of 'loss of confidence' the most serious. As a result of cross-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wareness and the 'most recent stress' item, a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tress by type and hair loss status that constitutes hair loss awareness, it was analyzed that all types of stress affect hair loss in college students. Among them, career/employment stress and academic stress were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stress, and in the event of hair loss, it was analyzed that they were more willing to engage in hair loss treatment for career/employment, study, and appearance befo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r economic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lassified stress by type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through empirical research methods by specifying the contents of hair loss recognition into three categories: hair loss status, hair loss management, and hair loss treatment.

Keywords : Stress, Hair loss awareness, Hair loss status, Hair loss management, Hair loss treatment

1. 서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방면에서 급격하고도 변화무쌍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을 거듭할수록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과 성인의 중간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성인들과 비교하여 미성숙의 단계이며 또한 주변 환경 상황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맞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개인 혼자 힘으로는 대부분 조절이나 대처가 어렵고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불안과 스트레스에 중복적으로 노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그에 따른 반응은 개별적으로 서로 다르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기의 대학생들 감정적인 측면에서 강한 질풍노도의 시기 혹은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으로는 중간인 또는 제2의 반항기로 표현하기도 한다[1]. 많은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진로 및 취업, 불확실한 미래,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가정과 경제, 학업, 외모 등의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들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다양한 부수적인 반응을 유도하면서 소화 장애, 두통, 망상, 불안, 우울증 등의 신경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붕괴, 자신감과 의욕 상실, 대인관계 기피 등을 초래한다고 하였다[2].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분석된 것처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러 분야의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더 나아가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신체적인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사회 전반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현대사회에 있어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중요하게 연구해 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웰빙 문화와 외모에 집착하는 루키즘이라는 사회적 트렌드의 방향으로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은 외모에서의 자신감이나 독특한 개성, 다양한 분위기 연출 면에서 자신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미의 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두피나 모발의 손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 탈모는 헤어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제약이라 할 수 있다[3]. 모발의 건강 상태 여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지만 자존감이나 삶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거

나 미를 표현하는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체적인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4], 이와 관련된 산업인 탈모 치료 병원이나 탈모 관리 전문센터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5]. 탈모는 대학생들의 각종 스트레스 노출에 의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혹은 자가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대학생들의 탈모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다[3]. 대부분 탈모의 시작 연령이 20대임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의 탈모 경험과 탈모에 대한 인식 및 탈모 예방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탈모의 연관성 및 탈모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반응의 특징 및 양상과 탈모의 인식 정도에 따른 탈모 관리에 대한 반응 수준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탈모 인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대학생들은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 즉 다방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그중 일부는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해소가 어려운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경험, 혹은 스트레스의 질보다도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적응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반면, 부적절한 대처로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좌절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6]. 또한, Folkman (1984)[7]은 스트레스 해결 방식의 차이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스트레스 자체보다 대학생의 적응력 결과에도 차이를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의 결과가 대학생의 적응력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8,9]. 장연하(2017)[10]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대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인 환경임에도 개인이 직접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게 되고, 반면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을 시에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더불어 집안 환경보다는 직장에서의 업무환경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보고되었다. 성취와 관련한 스트레스에는 적극적 대처방식을,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에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학업 및 진로 문제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일 경우 정서 중심적인 대처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1.2. 탈모와 탈모 인식

탈모란 모발의 성장 사이클에서 모모 세포의 약해진 힘이 성장기를 짧게 하고 반대로 휴지기 와 다음 성장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이미 자라난 모발조차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탈락해 버리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12]. 스트레스가 탈모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스트레스로 인해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코스테론(corticosterone)'이 모발의 성장 개시를 억제하여 모발 휴지기가 길어지면서 탈모가 발생하는 연결 고리로 일정 기간을 거쳐 성장과 탈락을 반복하는 모발 사이클은 모주기 때에 탈락하는 것을 자연 탈모라 하고, 성장주기가 비정상적으로 짧아지거나 상대적으로 휴지기 기간이 정상 기간보다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성장주기의 변화로 모발이 탈락하는 것을 이상 탈모로 보고 있다. 정상적인 자연 탈모는 하루에 40~100개 정도로 탈락하며 탈락한 숫자만큼 다시 자라나고, 비정상적인 경우는 하루에 탈락하는 모발 수가 120개 이상 정도를 탈모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서히 진행되면서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갑자기 탈락하는 원형탈모 등의 현상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13]. 원인은 유전성, 스트레스, 남성호르몬, 노화, 질병이나 감염에 노출 시, 약물, 생활 습관, 음주 및 흡연, 화학적 모발 시술, 다이어트, 산전과 산후, 견인성, 반흔성 등 다양하지만[14], 그중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사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스트레스는 여러 형태의 탈모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5], 이진희(2011)[15]의 연구에서는 두피 인식에서 대부분이 두피나 모발에 대한

관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탈모에 대한 부분에서는 청결이나 건강 상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화학 시술과 탈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여대생들의 음주나 불규칙한 식사 등의 식습관과 생활적인 일상 습관이 두피나 모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16]. 대학생들의 성별, 수면시간, 다이어트 경험 등의 생활 습관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수준으로 두피·모발 관리 행동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17]. 또한 스트레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탈모 관심도나 탈모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가 탈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2. 연구 방법

2.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탈모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스트레스와 탈모 인식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H1: 유형별 스트레스는 탈모 인식 중 탈모 현황과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 H2: 유형별 스트레스는 탈모 인식 중 탈모 관리와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 H3: 유형별 스트레스는 탈모 인식 중 탈모 치료와 상관관계가 있다.

2.2. 조사설계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의 대학생 중 1, 2학년 대상자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56부를 회수하였고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11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45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 특성은 3문항으로, 탈모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는 유형별 스트레스가 5문항,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가 1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탈모 인식에 대한 설문은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탈모 인식에 대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통계 18.0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Table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의 교차분석 결과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113명(46.1%), 여성은 132명(53.9%)으로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스트레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진로/취업 스트레스’가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답한 사람이 49명(20%)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여성의 경우도 ‘진로/취업 스트레스’가 55명(22.4%)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남성의 경우는 그다음 순위로 진로/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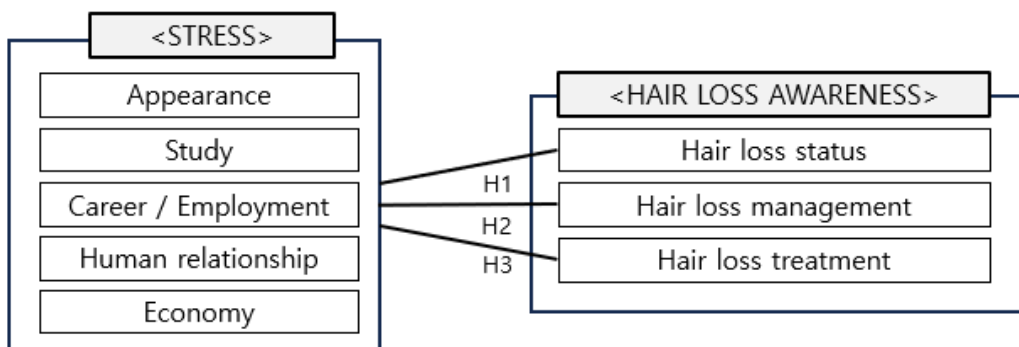


Fig.1. Research Model.

Table 1. Questionnaire composition and analysis method

Variable		Scale	Question	Analysis method
General characteristic	gender	nominal scale	7	crosstabulation analysis
	grade			
	age			
About hair loss awareness In general characteristic	hairs lose in a day			
	standard of hair loss			
	biggest cause of hair loss			
	biggest problem with hair loss			
Stress	stress by Type	interval scale	5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ost recent stress	nominal scale	1	crosstabulation analysis
Hair loss awareness	hair loss status	interval scale	10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air loss management			
	hair loss treatment			
Total			23	

Table 2. Results of a cross-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and the 'most recent stress' item

Variable		The most recent stress					Total / (%)
		Appearance / (%)	Study / (%)	Career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Economy / (%)	
Gender	man	8(3.2)	23(9.4)	49(20.0)	14(5.7)	19(7.8)	113(46.1)
	female	18(7.3)	30(12.2)	55(22.4)	18(7.3)	11(4.5)	132(53.9)
Grade	1 grade	14(5.7)	41(16.7)	58(23.7)	20(8.2)	18(7.3)	151(61.6)
	2 grade	12(4.9)	12(4.9)	46(18.8)	12(4.9)	12(4.9)	94(38.4)
Age	10s	1(0.4)	1(0.4)	3(1.2)	0(0)	3(1.2)	8(3.3)
	20s	25(10.2)	52(21.2)	101(41.2)	32(13.1)	27(11.0)	237(96.7)
Total		26(10.6)	53(21.5)	104(42.4)	32(13.1)	30(12.2)	245(100)

학업, 경제, 대인, 외모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진로/취업, 학업, 대인과 외모, 경제 순으로 분석되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의 학년은 1학년이 151명으로 61.6%를 차지했고, 2학년이 94명으로 38.4%를 차지했다. 스트레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 모두 진로/취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학년의 경우는 진로/취업, 학업, 대인관계, 경제, 외모순으로 분석되었고, 2학년의 경우는 진로/취업 다음으로 학업과 대인관계와 경제가 동점으로 분

석되어 2위를 차지했으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의 연령은 20대가 237명으로 96.7%를 차지했고, 10대가 8명으로 3.3%를 차지했다. 20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 역시 진로/취업으로 41.2%를 차지해 1위로 분석되었고, 학업, 대인관계, 경제, 외모순으로 분석되었다.

3.2. 탈모 인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의 교차분석 결과

탈모 인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도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하루에 빠지는 모발 수에 대해서 진로/취업은 다른 스트레스에 비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150개 이상 모발이 빠지는 경우도 진로/취업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루에 빠지는 모발 수는 53.9%가 50개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50~99개가 38.8%로 나타났다. '하루에 빠지는 모발 수가 몇 개 이상이면 탈모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은 100개 이상이 26.9%로 가장 많았고, 200개 이상은 18.8%, 300개 이상은 15.9%, 150개 이상은 14.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요인이 51.8%로 가장 많았고, 화학 시술(염색, 펴)이 12.2%, 청결이 11.8%, 모발 관리와 다이어트가 9.8%, 불면증이 3.7%, 흡연이 0.4%로 분석되었고, 음주라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결, 화학 시술(염색, 펴), 불면증, 다이어트, 환경오염, 유전 요인 모두 진로/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사람의 분포가 가장 높았고, 모발 관리와 흡연이라고 답한 사람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으로 분석되었다.

'탈모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상실이 75.5%로 가장 높았고, 이성교제 어려움이 7.3%, 대인관계 어려움이 6.5% 순서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이처럼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탈모 질환의 병인에 작용하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므로 스트레스와 탈모는 악순환 고리를 보여주기도 한다[18].

3.3. 탈모인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탈모 인식에 대한 10개 항목에 대해 신뢰도 분석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 결

과 크롬바알파(Cronbach's α)계수는 0.790이 나왔고,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신뢰도 수준인 0.6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근거는 아이겐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3개의 요인을 '탈모 현황', '탈모 관리', '탈모 치료'로 명명했으며, 이 3가지 요인을 탈모 인식을 구성하는 3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탈모 인식 요인의 총분산 설명력은 70.837%였고, KMO(Kaiser-Meyer-Olkin) 값은 0.773이었다. 이 값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탈모 인식 항목의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유형별 스트레스 5개 항목과 탈모 인식을 구성하는 탈모 현황, 탈모 관리, 탈모 치료 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스트레스 유형 중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진로/취업 스트레스(3.13점)로 분석되었고, 학업 스트레스(2.75), 외모 스트레스(2.67), 경제 스트레스(2.63), 대인관계 스트레스(2.39) 순으로 분석되었다. 탈모 인식 항목은 요인분석 결과로 분류된 항목들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는데, 탈모 치료에 대한 항목이 3.4313으로 가장 의향이 높았고, 탈모 관리(3.277), 탈모 현황(2.2959) 순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스트레스와 탈모 인식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으로, 탈모 현황은 유의확률 $p < 0.01$ 의 조건에서 외모(상관계수 0.337), 학업(상관계수 0.467), 진로/취업(상관계수 0.360), 대인관계(상관계수 0.254), 경제(상관계수 0.278) 스트레스 모든 항목이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진로/취업, 외모, 경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1 "유형별 스트레스는 탈모 인식 중 탈모 현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채택되었다. 유형별 스트레스와 탈모 인식을 구성하는 탈모 관리와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5가지 모든 항목에서 유의확률 $p < 0.01$ 과 $p < 0.05$ 의 조건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2 "유형별 스트레스는 탈모 인식 중 탈모 관리와

Table 3. Results of cross-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hair loss awareness and 'recently greatest stress'

Variable		Biggest stress recently					
		Appearance /(%)	Study /(%)	Career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Economy /(%)	Total /(%)
Per day falling out Hair Number	~ 50	13(5.3)	26(10.6)	56(22.9)	20(8.2)	17(6.9)	132(53.9)
	50 ~ 99	12(4.9)	24(9.8)	41(16.7)	6(2.4)	12(4.9)	95(38.8)
	100 ~ 149	1(0.4)	3(1.2)	4(1.6)	3(1.2)	1(0.4)	12(4.9)
	150 ~ 199	0(0)	0(0)	2(0.8)	1(0.4)	0(0)	3(1.2)
	200 ~	0(0)	0(0)	1(0.4)	2(0.8)	0(0)	3(1.2)
Day a few more hair loss standard	100 ~	8(3.3)	10(4.1)	35(14.3)	7(2.9)	6(2.4)	66(26.9)
	150 ~	3(1.2)	4(1.6)	23(9.4)	5(2.0)	1(0.4)	36(14.7)
	200 ~	6(2.4)	10(4.1)	16(6.5)	7(2.9)	7(2.9)	46(18.8)
	250 ~	2(0.8)	8(3.3)	3(1.2)	4(1.6)	4(1.6)	21(8.6)
	300 ~	4(1.6)	10(4.0)	15(6.1)	2(0.8)	8(3.3)	39(15.9)
	350 ~	2(0.8)	3(1.2)	5(2.0)	3(1.2)	1(0.4)	14(5.7)
	400 ~	1(0.4)	8(3.3)	7(2.9)	4(1.6)	3(1.2)	23(9.4)
Hair loss most big cause	cleanliness	3(1.2)	8(3.3)	13(5.3)	2(0.8)	3(1.2)	29(11.8)
	hair care	1(0.4)	8(3.3)	7(2.9)	5(2.0)	3(1.2)	24(9.8)
	chemical procedures	3(1.2)	4(1.6)	13(5.3)	3(1.2)	7(2.9)	30(12.2)
	smoke	0(0)	1(0.4)	0(0)	0(0)	0(0)	1(0.4)
	drink	0(0)	0(0)	0(0)	0(0)	0(0)	0(0)
	insomnia	1(0.4)	2(0.8)	4(1.6)	1(0.4)	1(0.4)	9(3.7)
	diet	4(1.6)	5(2.0)	8(3.3)	3(1.2)	4(1.6)	24(9.8)
	environmental pollution	0(0)	0(0)	1(0.4)	0(0)	0(0)	1(0.4)
	genetic factors	14(5.7)	25(10.2)	58(23.7)	18(7.3)	12(4.9)	127(51.8)
Due to hair loss due to most big problem	confidence loss	22(9.0)	38(15.5)	82(33.5)	20(8.2)	23(9.4)	185(75.5)
	difficulty dating the opposite sex	1(0.4)	1(0.4)	11(4.5)	4(1.6)	1(0.4)	18(7.3)
	interpersonal difficulties	1(0.4)	4(1.6)	6(2.4)	3(1.2)	2(0.8)	16(6.5)
	employment/ career difficulties	0(0)	5(2.0)	2(0.8)	2(0.8)	3(1.2)	12(4.9)
	etc	2(0.8)	5(2.0)	3(1.2)	3(1.2)	1(0.4)	14(5.7)
Total		26(10.6)	53(21.5)	104(42.4)	32(13.1)	30(12.2)	245(100)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results for hair loss recognition

Division	Component	Mean	SD	Cronbach's α	Component	Communalities	Eigenvalues	% of Variance (Cumulative %)
hair loss status	My hair seems to be thinning recently	2.34	1.151	0.766	0.908	0.833	3.539	35.391 (35.931)
	Recently, my hair seems to be falling out more than before	2.43	1.142	0.776	0.864	0.747		
	My scalp health seems to have deteriorated recently	2.40	1.139	0.771	0.856	0.740		
hair loss awareness	I've been worrying about hair loss recently	2.02	1.211	0.770	0.700	0.641	2.448	24.476 (59.867)
	I am willing to use a hair loss product (shampoo)	3.47	1.154	0.760	0.897	0.833		
	I am willing to receive a scalp massage to manage hair loss	3.43	1.177	0.752	0.803	0.749		
hair loss treatment	I am willing to take medication to manage hair loss	2.91	1.227	0.769	0.696	0.551	1.097	10.970 (70.837)
	If I experience hair loss, I am willing to have a hair transplant	3.46	1.206	0.785	0.853	0.744		
	If I experience hair loss, I am willing to use hair extensions or wigs	3.73	1.073	0.776	0.812	0.702		
	If hair loss occurs, I am willing to actively seek hospital treatment	3.11	1.228	0.789	0.700	0.543		

cronbach's α =0.790, N=245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Rotation method: Varimax
 Extract: Eigenvalues(1.0) / KMO(Kaiser-Meyer-Olkin)=0.77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s. Chi-Square=1066.730, df=45, Sig=0.000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stress and hair loss perception

Component		Mean	SD	N
Stress	Appearance stress	2.67	1.056	245
	Academic stress	2.75	1.131	245
	Career/Employment Stress	3.13	1.087	245
	Interpersonal stress	2.39	1.163	245
	Economic stress	2.63	1.192	245
Hair loss awareness	Hair loss status	2.2959	0.97913	245
	Hair loss management	3.2707	0.99894	245
	Hair loss treatment	3.4313	0.95023	245

Table 6.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hair loss perception

	Appearance stress	Academic stress	Career/Employment Stress	Interpersonal stress	Economic stress
Hair loss status	0.337**	0.467**	0.360**	0.254**	0.278**
Hair loss management	0.011	0.073	0.117	0.77	0.110
Hair loss treatment	0.126*	0.138*	0.166**	0.061	0.031

**p<0.01, * p<0.05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유형별 스트레스와 탈모 인식을 구성하는 탈모 치료와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5가지 스트레스 유형 중 3가지(외모, 학업, 진로/취업)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유의확률 $p<0.01$ 의 조건에서 진로/취업 스트레스의 상관계수가 0.166으로 가장 컸으며, 유의확률 $p<0.05$ 의 조건에서 학업 스트레스(상관계수 0.138)와 외모 스트레스(상관계수 0.126) 순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경제 스트레스는 유의확률 $p<0.01$ 과 $p<0.05$ 의 조건 모두 탈모 치료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3 “유형별 스트레스는 탈모 인식 중 탈모 치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분 채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탈모가 시작되는 시기의 대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탈모와의 관련성으로 탈모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스트레스와 탈모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기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 중 24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서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의 교차분석, 탈모 인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의 교차분석, 유형별 스트레스 5개 항목과 탈모 인식을 구성하는

탈모 현황, 탈모 관리, 탈모 치료 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스트레스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유형별 스트레스 평균이 3.5점 이하로 나타나서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탈모 인식을 구성하는 탈모 현황, 탈모 관리, 탈모 치료에 대한 의향도 3.5점 이하로, 아직은 높지 않게 분석되었다. 둘째, 탈모의 원인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의 교차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유전적 요인을 탈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음주와 흡연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이 일반적인 성인의 스트레스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2]는 결과로 보아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탈모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상실'로 분석되었고, 특히 진로/취업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사람일수록 '자신감 상실'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탈모 인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최근 가장 큰 스트레스' 항목의 교차분석 결과와 유형별 스트레스와 탈모 인식을 구성하는 탈모 현황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가 대학생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탈모가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는 스트레스 반응도의 점수가 높게 나온 연구[19]에서도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진로/취업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조사 대상인 대학생들은 탈모 전문제품(샴푸), 탈모 관리를 위한 두피마사지, 탈모 관리를 위한 약품 복용에 대한 의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탈모가 생겼을 시에는 대인관계나 경제적 문제에 앞서 진로/취업, 학업, 외모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탈모 치료(모발이식, 불임머리나 가발, 병원 치료)에 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탈모 인식에 관한 내용을 탈모 현황, 탈모 관리, 탈모 치료의 3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실증적 연구 방법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탈모 인식의 구성이 탈모 현황, 탈모 관리, 탈모 치료에 국한되어 탈모 원인이나 예방 행동 등에 대한

항목은 다루지 못하였고, 또한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있는 학생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탈모를 인식하는 데 있어 좀 더 세분화한 요인들과 좀 더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탈모 인식에 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사료 된다.

References

1. E. J. Son, "Case study on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of at-risk youth",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2009).
2. D. Y. Lee, "Characteristics of Stress Response and Mental Health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5).
3. J. A. Jeon, "A Study on Perception and State of Scalp & Hair Care among College Students in Beauty-Related Departm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istance Graduate School*, (2007).
4. K. R. Lee, "A Study on Awareness and State of Scalp & Hair Care : the case of Gangweon and north Chungcheong provinc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istance Graduate School*, (2008).
5. J. W. Hyun, H. H. Kim, "A Study of Alopecia of the Early Stages Caused by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3, No.2 pp. 37-48, (2007).
6. E. D. Choi,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2005).
7. S. Folkman, R. S. Lazarus,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A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8, No.1 pp.

- 150-170, (1984).
8. A. G. Billings, R. H. Moos,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impact of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4, pp. 139-157, (1981).
 9. C. J. Holahan, R. H. Moos,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 389-395, (1986).
 10. Y. H. Jang,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7).
 11. K. H. Kim, K. K. Ch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 No.2 pp. 229-237, (1994).
 12. J. H. Song, H. N. Back, S, S, Seo, H. R. Park, H. W. Jang, W. J. Choi, *Trichologist education Book III*, Seoul International Scalp Health Association, (2007).
 13. S. I. Joe, J. M. Choi, *Scalp and hair loss management*, league line, (2006).
 14. H. H. Go, "A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Alopecia in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p.47, (2016).
 15. J. H. Lee, "Scalp & Hair Treatment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reality of Alopecia", *Master's thesis, Holy Ghost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p.5, (2011).
 16. Y. S. Kwon, "The lifestyle habi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re related to scalp and hair impact on foot condition",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37, (2012).
 17. G. Y. Hyun, H. J. Jeon, "Behaviors on Scalp and Hair Car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uman Cosmetic Arts*, Vol.17, No.3 pp. 93-105, (2016).
 18. B. L. Lew, W. Y. Sim. "Stress and Alopecia", *Korean Stress Society*, Vol.15, No.2 pp. 85-91, (2007).
 19. J. Y. Kim, Y. S. Kim, "A Study on hair care of Alopecia man and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sthetics & Cosmeceutics*, Vol.1, No.2 pp. 67-77, (2006).